인간 폐기

오현지

대문을 정확하게 세 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혁이 눈을 떴다. 틀림없이 상진이었다. 다급하게 뛰어나간 재혁이 대문을 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대낮에 혼자 검은색이었다. 손목의 전자시계 옆을 누르며 보니 월요일이었다. 캐리어를 받는 날은 수요일인데. 재혁은 고개를 수그리고 캐리어만 내려봤다. 오른발 슬리퍼를 걸친 왼발과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오른발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앞에 선 상진의 구둣발은 날카로웠고 윤이 났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상진은 말을 마치자마자 구두처럼 검고 반질거리는 캐리어 하나를 재혁의 집 대문 안으로 밀어넣었다. 유난히 각이 진 캐리어였다. 손에 매끄러운 모서리가 닿았다. 겉으로 상진이 말한 어려움을 가늠할 수 없어 재혁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잠시 관자놀이를 짚고 호흡을 가다듬은 재혁은 양손으로 캐리어 모서리를 잡아 밀었다. 손에 닿는 차가운 무게감에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손과 발에 다시 힘을 주고 창고로 걸어갔다.

창고 문을 닫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났다. 재혁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장화에 발을 넣고 그 위 벽에 걸린 방호복을 입었다. 캐리어 옆면의 비밀번호를 '0909'로 맞춘 후 선반 위에 포개진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그 옆의 방독면을 머리에 썼다. 재혁은 온몸을 빈틈없이 감싼 후 다시 캐리어에 손을 뻗었다. 조심스럽게 테두리를 따라 지퍼를 당기자 캐리어가 터지듯 열렸다. 놀란 재혁이 감았던 눈을 떠보니 두꺼운 비닐로 겹겹이 싸인 두 덩어리가 보였다. 하나는 열린 캐리어를 가로지르며 캐리어보다 더 길게 튀어나와 뻗어져 있었고, 바닥을 구르는 다른 하나는 양배추 같은 동그란 덩어리였다. 나뉘어 있던 적은 없었는데. 재혁은 두 덩어리의 정체를 알 것 같았다. 눈에 힘을 주며 숨을 크게 내쉰 재혁은 동그란 덩어리를 한 손에 잡았다. 물기가 맺혀 장갑에 감겨오는 비닐을 한 겹씩 조심스레 벗겨냈다. 재혁이 허공을 보며 네 겹쯤 벗겨냈을까. 차갑고 딱딱한 것에 장갑 끝이 닿았다. 그것의 경사를 느낀 재혁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내 온몸이 굳은 재혁은 느리게 눈만 아래로 굴려 그것을 봤다.

재혁은 들고 있던 덩어리를 내팽개치고 일어나 창고 문으로 달려갔다. 쇠문을 몸으로 부딪치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장갑이 축축한 탓에 동그란 손잡이가 손에서 자꾸만 헛돌았다. 재혁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돌려 밖으로 뛰쳐나왔다. 바닥에 넘어진 재혁은 땅을 짚고 엎드려 구역질했다. 기침이 터져 나오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위가 쭈그러드는 듯했지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재혁은 멍하니 바닥에 앉아 열린 창고 문을 돌아봤다. 바닥을 구르고 있는 건 민재의 머리였다.

민재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다. 사촌형과 자이온 수리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는 말에 재혁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생각했었다. 불량 자이온이 사람들을 죽일 때도 민재는 자이온을 수리했겠지. 그렇게 번 돈으로 다시 자이온을 위해 썼겠지. 자이온은 입력한 일은 뭐든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였다. 자이온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퇴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이 자이온으로 대체되었고 사람들은 자리를 빼앗긴 채 잊혔다. 자이온으로 사회가 망가져 갈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묻히고, 망가짐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재혁은 전자였고, 민재는 후자였다. 재혁은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가 묻혀야 했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민재처럼 기회를 잡지 않은 건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재혁은 대학을 졸업하고 민재를 만날 생각이 없었다. 지금 민재는 번듯한 회사 이사였고, 재혁은 취업 시장에서 도태된 불순분자였다.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였다. 재혁이 민재에게 연락해 느끼게 될 비참함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민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민재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목소리로 재혁을 대했다. 합격 연락만 기다리던 재혁은 민재의 연락이 반가울 지경이었다.

"너 그때 진짜 멋있었잖아. 시위하면서도 맨날 과탑 찍고."

"뭐가 멋있냐. 그거 때문에 지금 취업도 못 하는데……."

다시 만난 민재는 재혁이 무모하고 철없이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려 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했다. 재혁은 민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가장 반짝이던 시절을 회상했다.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며 술주정을 부리기도 했다. 재혁이 술과 과거에 취했을 때쯤, 민재는 본론을 꺼냈다.

"너 우리 회사 안 들어올래?"

민재는 자신의 회사가 찾고 있는 인재라며 재혁을 치켜세웠다. 과거 자이온 공학과에서 늘 수석이었던 재혁에 관해 이야기했다. 재혁은 특히 자이온을 만지는 것에 재능이 있었다. 민재의 회사는 자이온을 수리하는 회사였다. 민재는 결국 자이온이 세상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이온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번뜩이는 민재의 눈에 탐욕이 차올랐다. 민재는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며 재혁의 대답을 재촉했다. 민재는 재혁이 불편한 이유를 다 아는 듯 굴면서도 쉽게 말했다. 재혁은 민재의 말에서 모순을 찾으면서도 조금씩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다. 재혁이라고 영영 도태된 채로 살고 싶지는 않았다.

"조금만 눈 감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야. 넌 분명 잘할 수 있어."

민재에게 왜 눈을 뜨고 죽었는지 묻고 싶었다. 재혁은 민재 때문에 눈을 감지도 뜨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대체 왜. 죽은 민재와 눈이 마주친 재혁은 구역질이 치밀었다. 고개를 돌린 채 민재의 눈꺼풀 위를 손날로 지그시 눌렀다. 그러나 단단히 고정된 민재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재혁의 손을 밀어내며 더 크게 치켜뜬 것 같았다. 이제 눈을 뜬 걸까. 재혁은 굳은 민재의 얼굴을 닫힌 자이온 큐브 위에 올려두었다. 재혁은 민재가 들어 있던 빈 캐리어만 챙겨 창고를 나왔다.

재혁은 죽은 민재와 한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민재를 처리할 수도 없었다. 상진이 왜 자이온이 아닌 민재 시체를 보냈는지 묻고 싶었다. 민재를 죽인 건 상진일까. 민재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죽어도 이상할 것 없었다. 민재를 죽인 사람은 나를 알까. 재혁은 민재가 담겨 있던 캐리어를 열어 옷장에 걸린 옷을 손에 잡히는 대로 쑤셔 넣었다. 남은 공간에는 옷장 서랍에 모아두었던 현금을 쓸어 담았다. 재혁은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섰다. 상진이 알고 있는 이 집에서 벗어나야 했다.

*

재혁은 큰길로 나와 택시에 손을 뻗었다. 예약이라 적힌 택시 몇 대가 재혁을 지나쳐 갔다. 조급해진 재혁은 도로로 내려와 손을 흔들었다. 택시 한 대가 재혁의 앞에 멈춰 섰다. 재혁은 캐리어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그 옆에 탔다. 택시 기사가 뒤돌아 어디로 갈 건지 묻는 말에 재

혁은 숨을 들이마시다 멈췄다. 재혁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재혁은 택시 기사와 옆자리의 캐리어를 번갈아 보다 “멀리… 최대한 멀리 가주세요.”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는 캐리어를 보다 정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재혁은 택시 기사를 물끄러미 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받은 건 잘 처리하셨나요?]

주머니의 진동에 폰을 꺼내 보니 상진의 문자였다. 도망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진이 시키는 일을 맡지 말아야 했나. 상진은 재혁을 알았지만 재혁은 여전히 상진을 몰랐다. 그날도 그랬다.

재혁이 먹다 남은 짜장면을 쏟아부었다. “폐기해.” 재혁이 말하자 자이온 큐브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재혁은 의자에 앉아 닫힌 큐브를 내려다봤다. 큐브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다는 점이 좋았다. 큐브가 돌아가는 진동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세 번 울렸다. 놀란 재혁은 창고 밖으로 나서며 목을 가다듬었다. 잠긴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누구세요.” 하고 튀어나왔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 잠시 망설이다 손목의 전자시계 옆을 누르고 대문을 열었다.

남자는 인사도 없이 재혁을 빤히 보며 묵직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딱딱하고 차가운 얼굴에 어울리는 목소리였다. 재혁이 답할 새도 없이 그는 재혁과 열린 문틈 사이를 비집고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목소리와 달리 몸짓은 가벼웠다. 둘러볼 데도 없는 좁은 마당을 훑어보던 그가 창고로 다가가 반쯤 열린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다. 재혁은 그 뒤를 따르다 문 앞에 서서 그의 행동을 주시했다. 뭘 찾는 걸까. 남자는 자이온 큐브 앞에 서서 투입구를 열었다.

“음식물 처리기로도 사용하시는군요.”

재혁은 생활 습관을 들켜 수치스러웠다. 남자는 가벼워진 목소리로 자이온 큐브가 맞는지 물었다. 재혁이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창고를 나오며 명함을 건넸다. 재혁은 그와 명함을 번갈아 보다 명함을 받았다. 새까만 명함에 ‘안드로이드 큐브’라는 회사명이 은색으로 크게 로고와 박혀 있고, 오른쪽 아래에 ‘임상진’이라고 이름 석 자가 적혀 있었다. 안드로이드 큐브는 처음으로 안드로이드인 자이온을 폐기하는 큐브 모양 로봇을 개발한 회사였다. 그는 자신이 불량 자이온을 폐기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소개했다. 재혁은 입고 있는 흰 티의 늘어난 목을 잡아 펴며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점잖게 물었다.

“김재혁 씨가 불량 자이온 폐기를 맡아주셨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재혁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꾸만 늘어난 목을 만지작거렸다. 자이온 처리쯤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차피 일도 자이온 큐브가 다 하니까. 재혁에겐 손해 없는 장사였다. 다만 이렇게 쉬운 일에 왜 자신을 찾는지 의문이 들 뿐이었다. 상진은 그런 재혁의 표정을 읽은 듯 재혁과 같은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혁은 금세 우쭐한 기분에 취했다. 이후 상진은 재혁이 민재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2배가 넘는 액수를 제시했다. 민재 회사를 나온 후로 벌었던 돈을 다 써가던 시점이었다. 남은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지. 한 달은 가능할까. 취업은 다시 할 수 있나. 계산을 마친 재혁은 늘어난 목에서 손을 떼고, 상진이 내민 손을 꽉 붙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늘 처음이었다. 재혁은 단 한 번도 서울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재혁을 태운 택시는 단호하게 서울역에서 멈췄다. 택시비를 받은 택시는 재혁과 캐리어에서 멀어져갔다. 재혁은 다시 갈 곳을 잃었다. 재혁은 다른 지역을 잠시 고민했지만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는 삶은 더 어렵겠지. 자이온을 처리하는 일도 시작이 문제였다.

재혁은 민재 회사를 나오며 다시는 자이온에 엮이지 않으리라 다짐한 것이 무색하게 제자리였다. 상진의 손을 잡았지만 상진을 다시 만날 때까지 재혁은 꿈이길 바랐다. 그러나 상진은 바로 다음 날 재혁을 찾아왔다. 꿈이 아니었다. 상진은 검은 캐리어 2개를 끌고 재혁의 집으로 들어왔다. 먼저 재혁이 보호 장비를 알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재 회사에서 자이온을 취급할 때도 이 정도로 보호 장비를 한 적이 없었기에, 재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진을 바라봤다. 상진은 불량 자이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해 조심할수록 좋다며 강하게 주의를 줬다. 재혁도 불량 자이온을 다루는 건 처음이라 상진보다 더 꼼꼼히 몸을 점검했다. 재혁은 검은 캐리어를 들고 창고 안으로 혼자 들어갔다. 상진은 창고 밖에서 열린 문틈으로 재혁에게 다음 행동을 지시했다. 재혁이 캐리어를 열자 삼십 대로 보이는 남자 자이온이 반으로 접혀 있었다. 눈으로 봤을 때 자세가 기괴한 것 말고는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빈틈없이 감싼 재혁의 몸에 열이 올랐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느끼며 재혁은 자이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재혁의 뒤에서 상진이 그대로 들어 자이온 큐브에 넣으면 된다고 나긋하게 말했다.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반으로 접힌 자이온 아래를 비집고 양팔을 넣었다. 두꺼운 장갑 너머로 물컹한 살이 느껴져 재혁은 빠르게 팔을 뺐다.

"못 하겠어요."

창고 밖으로 뛰쳐나온 재혁은 사람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 상진은 재혁의 양어깨를 잡고 차분하게 다독였다. 자이온이 사람을 따라 만들었으니 당연하죠.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예요? 따뜻하지만 어깨에 힘이 실렸다. 상진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재혁은 눈을 감고 같은 말을 되뇌며 다시 남자의 몸 아래로 양손을 넣었다. 물컹하게 실리는 무게가 끔찍하게 소름 끼쳤다. 재혁은 아득해져 가는 정신을 붙잡고 상진의 말에 주의를 집중했다. 아무런 생각도 남기지 않고 상진의 목소리만 들었다. 상진의 지시에 따라 접혀 있는 자이온을 자이온 큐브에 그대로 넣자 재혁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재혁이 눈을 감고 작동 버튼을 누르자 투입구가 닫히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긴장이 풀린 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상진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말과 함께 현금 봉투를 선반에 올려두고 나갔다. 상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재혁은 울컥했다.

분명 자이온인데도 사람처럼 느껴져 재혁은 자주 망설였다. 상진은 불안해하는 재혁의 앞에서 직접 팔의 단면을 잘라 자이온임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초반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재혁은 혼자서도 곧잘 자이온을 처리했다. 상진은 온화한 얼굴로 늘 할 수 있다며 재혁을 인정해 줬다. 재혁은 자신을 믿어주는 상진을 믿었다. 상진이 맡긴 일이니 괜찮을 거라 믿었다. 상진을 믿게 된 후로 재혁은 정말 아무렇지 않았다. 사회에 해가 되는 자이온을 폐기하는 건 뿌듯한 일이었다.

[집에 안 계시네요?] 상진이 벌써 집에 찾아왔다. 손에서 다시 진동이 울렸다. [오늘 처리하신 건에 대해 할말이 있습니다.] 상진은 아무것도 없던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도망쳤을까. 재혁은 상진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

재혁이 검은 캐리어를 끌고 집 앞에 도착하자 상진이 검은 차에서 내렸다. 큰 키의 상진이 재혁의 앞에 서자 재혁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검은 하늘에 검은 옷을 입은 상진 그리고 검은 캐리어. 재혁이 아무리 둘러봐도 온통 검은색이었다. 유일하게 빛나는 가로등은 멀리서 상진의 등만 희미하게 비췄다. 빛을 비춰도 검은색은 검은색이었다. 급히 다녀오시나 봐요. 상진은 웃으며 말했다. 재혁은 웃지 못하는 얼굴로 계속 떠오르는 질문을 뱉었다.

"진짜 민재인가요?"

상진은 놀란 기색도 없이 진짜가 아니라고 했다. 민재를 본뜬 자이온을 만들었는데 하필 불량이라 처리한 것뿐이라고. 재혁은 그 말에 안심했다. 이제 민재에게 연락할 수 있을 듯했다. 재혁은 긴장이 풀려 힘 빠진 목소리로 민재와 닮은 자이온은 차마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진은 다 이해한다는 듯 자비로운 얼굴로 재혁을 내려봤다. 재혁은 다시 상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했으니." 재혁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아는 상진이 고마웠다. 바닥을 구르던 민재의 머리는 이제 상진이 탄 차에 실려 떠나갔다.

*

재혁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사를 나오며 다시 연락하지 않으려 했지만, 재혁은 민재가 살아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신호음이 가다가 뚝 끊기며 전원이 꺼져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재혁은 폰을 붙들고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다. 연락처를 확인하던 재혁에게 '박민석' 이름 석 자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의 사촌형이자 자이온 수리 회사의 대표였다. 재혁은 민석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신호음을 들었다. 여보세요. 민석이 전화를 받았다.

"민재, 살아 있어요?"

"누구세요?"

"민재, 살아 있어요? 거기 있어요? 어디 갔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재혁의 다급한 물음에 민석이 딱딱하게 답했다. 재혁은 손에 힘이 풀려 폰을 떨어뜨렸다. 어제 본 게 민재가 아니었던 게 맞나. 떨어뜨린 폰 너머로 여보세요를 반복하는 민석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재혁은 어제 본 민재 자이온을 떠올렸다. 캐리어가 터지듯이 민재의 몸이 아니 민재 자이온의 몸이 튀어나왔고, 민재 자이온의 머리가 바닥을 굴렀다. 민재의 목 절단면이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검붉게 굳은 피였나. 검은 피였나. 이제껏 자이온이 그렇게까지 밀봉된 적이 있었던가. 재혁은 방독면을 써서 냄새를 맡지 못했다. 고무장갑 탓에 진짜 민재가 맞는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다만 자이온에서 느낀 왠지 모를 한기만 기억했다. 설마 그게 진짜 민재였던 건 아닐까. 상진이 잘못 전달된 민재를 거짓으로 무마하고 다시 데려간 거라면? 아니다. 민재는 원래 쓰레기같이 살던 놈이니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죽어 마땅한 놈이었다. 사람 장기나 떼다 파는 인간이 멀쩡하게 죽길 바랐다면 그게 더 우스운 일이겠지.

설마 상진이 거짓말을 했을까. 재혁은 확인해야 했다. 재혁이 왼손에 찬 전자시계의 블루투스를 켜 책상 위의 노트북과 연결했다. 녹음 파일에 들어가 상진이 제게 처음 찾아온 9월 9일의 녹음을 재생했다. 재혁은 십 분짜리 녹음 파일을 일 분씩 건너뛰다가 정지했다. "저는 불량 자이온을 수거해 폐기하거든요." 상진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믿음이 차올랐다. 상진은 분명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자이온을 혐오하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 재혁 자신과 비슷한 사람. 녹음 파일에서 상진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상진은 자이온 큐브 이용 방법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작동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폐기'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 어떤 방식이든 효과는 동일합니다." '폐기'라 말하는 건 음식물 쓰레기에만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상진은 익숙해질 거라 했지만 재혁은

여전히 사람과 닮은 자이온을 넣고 폐기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사람을 대체하는 자이온이 혐오스러우면서도 사람을 닮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처리가 끝나면 음식물이든 자이온이든 작은 큐브 모양의 정육면체 하나만 남습니다. 그건 어디에 버리든 아무도 모르겠죠.” 본래의 형태도 성질도 모두 잃고 다 똑같은 모양의 큐브로 굳혀진다는 점이 잔인했다. 사람을 아무리 흉내 내도 기계는 고작 거기까진 거였다.

“박민재 씨와 아직 연락하세요?”

녹음이 끝나갈 때쯤 상진이 질문했다. 재혁이 아니라고 답하자 상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잘 들리지 않아 재혁은 음량을 최대로 키워 재생했다. 잡음도 함께 커져 알아듣긴 어려웠다. 소리 크기를 천천히 끌어내리며 적당한 소리를 찾았다. 그러자 ‘잘’이라는 글자만 선명했고 그 뒤의 글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속도를 느리게 하니 늘어지기만 할 뿐 여전히 무슨 말인지 유추하기 어려웠다. 잘라내? 잘 아네? 잘하네? 뭘? 상진에게서 뭘 알아내야 할까. 상진이 녹음의 존재를 달갑게 여기진 않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재혁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재혁이 아는 상진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재혁에게 방향을 찾아준 사람이었으니까. 재혁은 상진이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

수요일이 되고 상진은 아무 일 없었단 듯 자이온을 전달했다. 상진은 재혁에게 쉬고 싶으면 말하라며 다정히 대했다. 재혁은 오늘 반드시 상진에 대한 의심을 종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재혁은 창고에서 캐리어를 열고 준비한 식칼을 꺼내 자이온의 손목을 썰기 시작했다. 물컹거리는 촉감과 잘 끊어지지 않는 손목이 진짜 사람 같았다. 자이온을 만드는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게 짜증 났다. 이윽고 완전히 잘라낸 손목의 단면을 확인하자 재혁은 굳어버렸다. 사람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자이온의 몸에는 검은 피가 흘렀다. 그러나 재혁이 자른 손목 혈관에는 붉은빛이 돌았다. 죽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아 피가 다 굳지도 않은 몸이었다. 재혁은 손을 놓지도 못한 채 숨을 몰아쉬었다. 호흡이 가빠 숨이 잘 뱉어지지 않았다. 재혁은 이대로 자신의 숨이 멎어버렸으면 했다. 그럼에도 몸은 살기 위해 계속 호흡을 이어갔다. 어쩌면 재혁이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여왔던 것일지도 몰랐다. 재혁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손을 끝까지 붙든 채 정신을 잃었다.

다시 창고에서 정신이 든 재혁은 살아있음에 안도하는 자신에게 구역질이 났다. 설마 그게 전부 사람이었을까. 재혁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상진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확실했다. 재혁의 손에 들린 누군가의 손이 그 증거였다. 시간이 지나 피가 검붉게 말라붙은 손은 자이온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제껏 재혁을 기만한 상진은 용서할 수 없었다. 재혁은 상진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남기고, 그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찾았다. 재혁은 창고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주워 숫돌에 갈았다. 날카로워진 식칼을 창고의 선반 위에 올려두고 그 위에 방독면을 덮어 감췄다. 재혁이 마당에 있는 주먹만한 돌들을 서로 부딪치며 가장 단단한 돌을 고르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세 번 울렸다. 재혁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돌을 움켜쥔 오른손으로 전자시계 옆을 꾹 누르고 재혁은 대문을 반만 열었다. 재혁은 대문 뒤에서 뒷짐을 진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상진을 올려봤다. 상진은 검은색의 각진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재혁은 티 내지 않으려 했지만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상진의 반듯한 얼굴을 보자 화가 났다. 상진은 재혁의 집 마당에 발을 디디며 입을 열었다.

"재혁 씨, 어제 힘들었죠?"

상진은 다 이해한다는 얼굴로 가방을 손바닥에 올리고 재혁을 향해 열었다. 가방은 만 원짜리 지폐가 다발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고작 돈. 그깟 돈으로 또 나를. 상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뻔했다. 재혁의 귀에 웅웅거리는 이명 소리가 들렸다. 상진이 돈다발을 하나 집어 재혁에게 건네려는 순간, 재혁은 오른손을 치켜들어 상진의 관자놀이를 힘껏 내리찍었다. 머리에 돌을 맞은 상진의 몸이 기울었다. 상진이 넘어지며 돈다발이 떨어져 내렸다. 가방과 함께 쓰러진 상진은 관자놀이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했다. 재혁은 상진의 얼굴 옆으로 돌을 내던지고는 상진의 두 발목을 잡아 들어 창고로 끌고 갔다.

재혁은 의자에 기절한 상진을 앉힌 뒤, 서랍에서 밧줄을 꺼냈다. 상진의 상반신을 밧줄로 감아 의자에 묶고 남은 밧줄로 의자 팔걸이에 양팔을 각각 묶었다. 창고 구석에서 민재를 포장했던 비닐을 가져와 밧줄 위를 감싸 단단하게 고정했다. 밧줄이 부족해 다리는 비닐로만 고정했다. 재혁은 상진의 뺨을 때려 깨웠다. 상진이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상진은 눈을 뜨자마자 팔과 다리에 힘을 주며 의자를 들썩였다. 묶인 몸과 창고 안을 둘러보더니 뭐 하는 거냐며 신경질을 냈다. 묶인 주제에 참 당당했다. 고작 이런 걸로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재혁은 방독면 아래 숨긴 식칼을 꺼내 상진의 목에 가져다 대며 왜 그런 거냐고 물었다. 상진은 대체 뭣 때문이냐고 물었다.

"박민재… 당신이 죽였잖아……."

상진은 말도 안된다며 발뺌했지만 재혁이 잘린 손을 들이밀자 입을 닫았다. 재혁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상진을 바라보았다. 상진은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자신은 시켜서 하는 꼭두각시일 뿐이라며. 단지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그 과정에서 민재 같은 사람들이 죽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재혁은 이제 상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재혁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상진은 거만하게 고개를 들었다.

"네가 날 죽일 수 있겠어? 큐브에 넣게? 재혁 씨, 이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상진은 반말하다가 금세 전처럼 존댓말을 했다. 재혁은 말없이 칼을 상진의 목에 바짝 가져다 댔다. 칼날에 닿은 상진의 목에 핏방울이 맺히자 상진이 소리쳤다.

"네가 처리한 자이온들 다 사람이었어! 알아? 네가 살인자였다고. 내가 아니라!"

"거짓말…"

"아니! 넌 시체를 맨눈으로 본 적도 맨손으로 만진 적도 없잖아. 내가 준 마스크, 내가 준 장갑, 내가 준 옷! 넌 아무것도 몰라."

상진은 재혁을 비웃으며 소리 질렀다. 상진은 핏발 선 눈으로 재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악을 썼다. 여태 상진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큰 목소리였다.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박민재랑 다른 사람들 다르지 않았어? 박민재만 냉동고에 있던 걸 빼 왔거든."

진실을 속삭이는 상진의 얼굴을 보며 재혁은 유난히 딱딱하고 축축했던 민재를 떠올렸다. 재혁의 얼굴이 구겨지자 상진이 그 표정을 따라 얼굴을 구겼다. 상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재혁은 칼을 떨어뜨리고 겁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재혁은 자신의 뒤통수를 부술 듯 움켜쥐고 상진 앞에 주저앉았다. 재혁이 고개를 들어 상진을 올려다봤다.

"왜 하필 나였어? 왜?"

"넌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건 늘 교체할 수 있거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내가 얼마나……."

"너도 결국 박민재처럼 될 거야. 알아도 모른 척했어야지!"

재혁의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손이 땅을 짚었다.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맺혔다. 재혁은 상진의 발을 잡으려 바닥을 긁으며 기었다. 상진은 그런 재혁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기 시작했다. 창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울렸다. 상진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자, 눈물로 젖은 재혁의 눈은 이내 분노로 부풀었다. 재혁은 분노에서 튕겨 나와 의자에 묶인 상진에게 달려들었다. 의자가 넘어가고 그 위에 재혁이 올라탔다. 재혁은 숨넘어갈 듯 웃는 상진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재혁은 눈이 찢어지도록 크게 뜨고 상진을 노려봤다. 재혁의 눈에 고인 눈물이 상진의 얼굴로 떨어졌다. 상진이 몸부림칠수록 손아귀에 힘을 더했다. 웃다가 목이 졸린 상진은 입을 크게 벌리고 꺽꺽 소리를 냈다. 상진이 발버둥치다 비닐을 찢고 재혁의 배를 걷어찼다. 상진이 악에 받쳐 소리치며 머리를 흔들었다. 여전히 양팔은 의자에 고정된 채였다.

"이렇게 끝날 거 같아?"

상진은 목소리가 갈라져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재혁은 분노로 떨리는 몸을 억누르다가 무언가 결심한 얼굴로 바닥에 놓인 식칼을 집어 들었다. 아니, 너만 죽으면 돼. 재혁은 양손으로 식칼을 부여잡고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상진은 눈을 한계까지 크게 뜨고, 입을 뻐끔거리며 호흡을 얕게 마시고 뱉었다. 너만. 너만. 너만. 재혁은 고장 난 기계처럼 반복하며 상진의 몸을 쉴 새 없이 찔렀다. 찔린 구멍마다 피가 솟아나고 살점이 튀었다. 찌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재혁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다. 상진은 마지막 호흡을 뱉을 때 눈과 입이 벌어진 그대로 굳어갔다. 몸에 힘이 풀리며 상진의 눈과 마주치자 재혁은 큰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눈물이 차올라 점점 눈앞이 흐려졌다 흘러내려 맑아지기를 반복했다. 칼을 놓친 재혁은 상진의 몸을 주먹으로 내려치다가 그 위에 엎어져 가쁜 호흡을 뱉으며 목멘 울음소리를 냈다.

*

"난 겁만 주려고 했는데… 네가 자초한 거야."

상진이 죽고 나서야 재혁은 비로소 자신이 살인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손바닥을 펼쳐보니 재혁의 손도 칼에 베이고 찍혀 피투성이였다. 그래도 피는 굳어갔다. 바닥에 고인 상진의 피도 굳어갔다. 상진의 몸도 의자에 묶인 그대로 굳어갔다. 3시간쯤 지나자 아무리 눌러도 사람의 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썩은 나무토막처럼 딱딱하고 냄새가 났다. 얼굴은 창백하고 누렇게 핏기 하나 없어졌다. 민재처럼 눈도 감기지 않았다. 피비린내만 창고에 갇혀 상진의 흔적으로 남았다. 재혁은 손목에 찬 시계로 간밤의 녹음 파일을 민석에게 전송했다. 민재의 시체는 찾을 수 있을까. 그때 진짜 민재란 걸 알아봤더라면…….

재혁은 상진의 피 냄새를 맡으며 생각하고, 상진의 눈을 바라보며 또 생각하고, 상진의 손을 잡아보며 다시 생각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재혁은 지금보다 따뜻하던 계절을 떠올렸다. 언제부터 굳어가고 있었더라. 민재의 말에 고개 끄덕인 순간이었는지, 상진의 손을 잡은 순간이었는지 재혁은 알 수 없었다. 재혁은 그 시작점을 찾지 않기로 했다.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재혁은 자신을 하나의 큐브로 굳히기로 했다. 재혁은 사람들을 넣었던 자이온 큐브에 들어가 앉았다. 허리를 굽혀 자신을 구겨 넣으며 말했다.

"나를 폐기해."

재혁의 작은 목소리에도 자이온 큐브는 빠르게 반응했다. 투입구가 닫히며 재혁의 등이 으스러지듯 눌렸다. 처리가 시작되는 기계음이 들렸다. 그제야 재혁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폐기가 시작된 재혁의 귀에 대문을 세 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200*72.8)